한과 해학의 <품바>와 세태풍자의 마당극 <밥>

역대 4인 품바의 신명나는 4색 무대
- 낮은 자의 목소리로 풀어낸 삶의 애환


한과 해학의 <품바>

7월 6일부터 15일까지 대극장에서 공연될 극단 가가의회의 '김시라의 품바'는 역대 품바 4인이 출연하여 흥겨운 무대를 마련한다. 미국 순회공연 및 국내 공연 1천회 돌파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보유한 '품바' 최고의 스타 3대 박동과, '놀이'에 있어서는 최고라는 찬사를 받은 7대 김기창, '창'과 '춤'에 있어 가장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 9대 최성웅, 藝와 知를 겸비한 품바 역사의 새로운 맥을 이어갈 14대 선욱현이 바로 그들이다.

이번 공연의 특징은 역대 품바 4인이 한 무대를 지키며 각각의 개인기를 선보인다는 것이다. 1인극 <품바>의 형식은 그대로 가져가되, 각 장마다 개인 품바 특유의 묘미와 매력을 한번에 만난다는 사실은 흥을 기다리던 관객에게 있어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 3674-0110)

"세상만물이 돌고 도는 서로의 밥"
- 김지하의 생명사상과 마당극의 만남


세태풍자 마당극 <밥>

7월 3일부터 15일까지 소극장에서 공연될 극단 길라잡이의 마당극 <밥>은 1985년 초연 이후 1천여회의 공연을 거치며 생명의 소중함과 세태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함께 나눠 온 작품이다.

한 농부가 무공해 쌀을 팔러 서울에 올라와서 좌충우돌 사건 겪는 첫째 마당 '똥이 밥이다', 가마솥을 선사시대 유물로 착각하고 난리를 떠는 서울사람들과 가마솥에 경건하게 밥을 지어먹는 농촌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둘째 마당 '밥이 한울림', 무전취식으로 감옥에 들어간 노인과 감옥에서 벌어지는 재판을 그린 셋째 마당 '나는 밥이다'가 질펀한 풍자와 해학으로 관객들을 웃고 울린다.

이번 작품에서도 권태원 박철민 정인기 등 이미 <밥>공연과 뗄 수 없는 배우들이 현장성 넘치는 건강한 에너지로 관객들과 호흡한다. 마당극의 스타라고 불리워지며 장내에 폭소와 경탄을 끊이지 않게 했던 박철민, 여유만만한 자세로 악역을 소화해 낸 권태원, 어눌하면서도 신뢰감이 가는 정인기의 연기가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판소리 탈춤가락 풍물굿과 함께 어우러지다 보면 이 작품이 말하는 '공동체의 삶'을 저절로 느끼게 될 것이다. (☎ 031-592-5993)

서민들의 애환과 삶을 흥겨운 무대 속에 진솔하게 담아 낸 두 공연과 함께 우리 민족의 애환과 눈물과 웃음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